

		보도자료		
		배포일시	2020. 11. 4.(수) 총 3매(본문2 참고1)	
국토교통부	도로관리과	담당자	· 과장 오수영, 사무관 남궁부, 주무관 이상진 · ☎ (044) 201-3915, 3910	
한국건설 기술연구원	인프라안전 연구본부	담당자	· 도로관리통합센터장 김승현, 수석연구원 박병석 · ☎ (031) 910-0524, (031) 995-0881	
한국도로공사	연구기획실	담당자	· 실장 강형택, 수석 김정석, 수석 이상래 · ☎ (031) 8098-6143, 6372	
한국도로협회	국제도로센터	담당자	· 센터장 방창식, 실장 여인수, 과장 송이오 · ☎ (02) 3490-1057	
보도일시		2020년 11월 5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1.4.(수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한·미 도로 전문가, 온라인서 만나 사회기반시설(SOC) 안전강화 논의한다

- `97년부터 양국 도로분야 끈끈한 교류, 금년엔 웹세미나로 회의
- 기후변화에 따른 산사태 대응 등 논의, 한국판 뉴딜도 공유

- ☐ 기후 변화에 대응하여 도로 산사태 예방 등 SOC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한·미 양국 정부 관계자 및 도로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댄다.
- ☐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미국 연방도로청 및 콜로라도주 교통청 등과 함께 산사태 등 기후변화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“한·미 도로 전문가 웹세미나”를 5일 개최한다.
 - 아울러 한국판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비탈면 경보 시스템 등 SOC 디지털화 사업도 공유하고 양국 간 상호 발전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.
- ☐ 도로 비탈면의 지속적 정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초장기 장마,

연속 태풍 등 예년과는 다른 강우패턴 등으로 산사태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, 이에 따라 선제적인 대응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.

□ 이러한 문제의식 위에서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, 도로교통연구원 등 국내 전문가와 미국 연방도로청 등은 양국의 지질재해, 기후변화 대응 연구 성과를 적극적으로 나눌 예정이다.

○ 특히 이번 양국의 논의 화두는 산사태 등 “지질재해” 및 “기후변화”이며, 우리 측은 실시간 감시가 가능토록 하는 다양한 IoT 기술*을 접목시킨 SOC 디지털화 사업도 소개한다.

* 산사태 모니터링 기술 : 가속도센서(MEMS), 인공위성(GPS), 광섬유센서, 드론, 음향측정(Acoustic Emission), 열적외선, 함수비, 라이다(LiDar) 등

○ 한편 미국 측은 “지질 위험과 기후변화와의 관계”, “지질재해 관리 성과분석”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.

□ 국토교통부 오수영 도로관리과장은 “기후변화는 비단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범세계적인 현상이므로, 도로관리 분야에서도 보다 선제적인 대응체계가 구축되도록 미국 등 다른 나라와도 다양한 논의와 연구를 진행토록 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 남궁부 사무관(☎044-201-3915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